

여수박람회 새 조직위원장

‘거물급’이 필요하다

재·정계, 국제무대 통하는 인사 선임해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장승우 조직위원장이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능력이 출중한 ‘거물급’ 인사가 후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에서는 최근 대형 민자유치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는 등 악재가 겹쳐 엑스포 준비에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방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후임으로 임명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년

여 남은 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여수박람회 개최까지는 곳곳에서 ‘압조’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사업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불투명해졌고, 박람회 핵심시설인 아쿠아리움과 200실 규모의 콘도(호텔) 건설 희망사업자 유치도 모두 실패로 끝나는 등 민자유치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 같은 난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박람회 규모 축소는 물론 운영이 줄속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민자유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불황 여파 탓도 있지만, 정부가 애초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35%를 민간 투자로 조달하기로 하는 등 처음부터 박람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가 약했다는 점도 민자유치 무산 이유 중 하나로 분석

되고 있다. 더욱이 여수엑스포 개최 이전인 2010년 중국 상하이 엑스포가 먼저 열리는 만큼 여수엑스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임 조직위원장은 각 사업별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여수엑스포의 해외 홍보 강화를 위해 국제적 인맥과 감각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의 여론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민들은 민자유치 저조로 박람회 성공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람회 개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후임 위원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정부와 상대할 수 있는 거물급 인사 또는 박람회가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글로벌한 인물이 돼야 여수와 전남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채꽃 청산도의 봄

원연한 봄날씨를 보인 2일 상춘객들이 노랗게 물든 원도군 청산도 유채꽃밭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원도군은 오는 19일 청산도에서 ‘제 1회 세계 슬로우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北 로켓 연료 주입 시작…발사 임박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연료주입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관측돼 로켓 발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5면〉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군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 “북한이 장

거리 로켓에 연료주입을 시작했으며

이는 북한이 주장해온 ‘위성발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

다”고 보도했다.

3단으로 추정되는 이 로켓의 1~2단은 특성이 강한 질산계통의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연료 주입을 마친 뒤 3~4일 후에는 발사해야 한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발사장

인근 연료탱크 보관소에서 로켓까지

지하로 연결된 파이프를 이용하기 때

문에 연료 주입여부를 정확히 파악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4~8일

발사하려면 기술적으로 지금쯤 연료 주입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로켓에 실제 연료가 채워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실제 로켓 발사일과 관련,

정부 당국은 기상조건을 고려하면

6~7일째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관

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소식통은 2일

“발사장이 있는 무수단리 상공 날씨

가 4~5일은 구름이 많고 6~7일은 중간 중간 햇살이 보일 정도로 얇은 구름이 관측될 것으로 예보됐다”면서 “8일에는 온 종일 맑은 구름이 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동해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인 곤고함, 초카이함이 전개되어 로켓 발사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당국은 북한의 장

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함에 따라 실

시간 정보공유체계를 갖추고 사실상

‘비상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 “北 미사일 발사땐 안보리 회부”

한국과 미국은 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단합된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 했다.

〈관련기사 5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런던에서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방침을 전명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미국의 신 행정부가 그동안

론 협력 등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미 공조와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두 나라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FTA 진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는 미국의 신 행정부가 그동안

한미 FTA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데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양 정상은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와 관련, 이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재정지출 확대 등 강력한 정책공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제 회복을 위한 무역 확대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호무역주의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연합뉴스

일 림

‘월요광장’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대표칼럼 ‘월요광장’의 필진이 6일부터 새로 바뀝니다. 광주일보는 경제, 교육, 언론, 문화 등 각계 전문가 4명을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새 필진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전문지식과 해안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김필식 이시장
▲서울대 농대 농가정책과 졸업 ▲광주발전연구원 이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추진위원 ▲동강대학 교수

◇김택민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고려대 대학원 문학박사 ▲조선대 사학과 교수 ▲위진수당사학회 회장 ▲2004 광주비엔날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스위스 BSJ재단 큐레이터

◇이원일 큐레이터
▲중앙대 예술대 ▲뉴욕대 대학원 ▲세비야 비엔날레 공동감독 ▲2004 광주비엔날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스위스 BSJ재단 큐레이터

◇최병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성균관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 ▲한국언론학회 이사 ▲저서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光州日報社

세계 4대 뮤지컬의 진수 최고의 걸작 한국어로 만나는 최초의 ‘캣츠’ 한국공연

CATS

놀랍다! 완벽하다! 황홀하다!

2009.4.21(화)~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전문비 062-220-0541 1588-0766

티켓마루 옥션티켓 ETicketc